

교계 첫 호스피스 요양원 탄생

불교 호스피스전문 요양원이 처음으로 건립됐다. 충북 불교자선봉사교육센터(소장 능행스님)는 최근 말기(임종) 환자들을 위한 요양원인 정토마을(원장 능행)을 건립, 불교 호스피스 활동이 새로운 전기를 맞게 됐다.

96년 설립되어 충북지역의 호스피스 및 자원봉사 활동을 이끌어 온 이 단체는 정토마을 설립을 계기로 호스피스 전문 교육을 마련하게 돼 한 단계 높은 불교 호스피스 활동을 펼치게 됐다. 호스피스란 임종을 앞두고 있는 말기 환자의 정신적, 육체적, 사회적 욕구를 충족시키며 평화로운 죽음을 준비할 수 있도록 돕는 무료 봉사활동을 말한다.

사단법인 불교자선공동회(이사장 모희스님) 산하 시설로 등록된 정토마을(일명 '아미타 호스피스의 집')은 현대의학으로 더 이상 치료

충북지방장봉사회 '정토마을' 9월 개원 의사·간호사·의료시설 갖춰 임종 간호 양로원·불교 장례시설도 건립 추진

가 불가능한 환자들을 위한 전인치료센터. 충북 청원군 문이면 남계리 소재 400여평의 부지에 1차로 300평의 호스피스 전문 요양원을 마련, 9월말 개원식과 함께 임종 6개월 이내의 호스피스 환자 10~15명(스님 우선)을 간호할 수 있게 됐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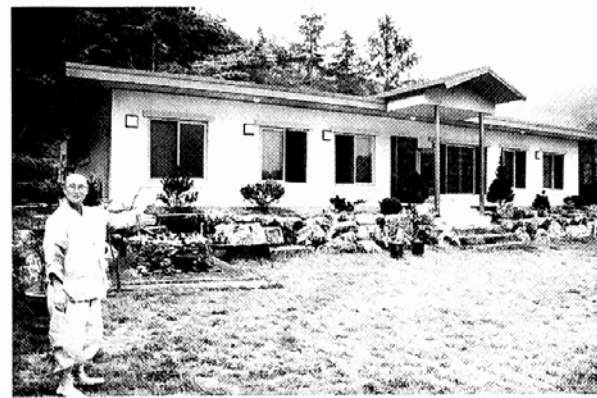
인근 종합병원과 노인병원의 자원봉사자 의사들과 3명의 간호사가 충분한 의료시설을 갖춘 현대의학으로 간호하면서 황토 찜질방, 황토물(맛사지) 욕조, 아로마(향기) 치료요법 등 한방 및 대체요법을 곁들이며 병실에서 수행도 할 수 있도록 해 심·신 양면에 걸친 치료가 가능하도록 했다.

충북불교자선봉사교육센터는 오는 16일부터 내년 10월 11일까지 8주간 교육과정을 밟는 제1기 전문

호스피스 및 직업간병인 교육생 중 호스피스 교육생을 이곳에서 실습할 수 있도록 해 전문 호스피스 교육공간으로도 활용할 계획이다.

충북불교자선봉사교육센터는 앞으로 3층, 600평 규모의 양로원을 건립하고 장기적으로 불교장례시설도 갖춰 종합 양로·의료 복지센터를 완공할 예정이다.

청주·청원지역에서 활동하는 충북지방장봉사회(회장 능행스님)가 모체가 되어 설립된 충북불교자선봉사교육센터는 창립 5년만에 200여 명의 봉사회원을 확보, 7개의 병원·복지시설에서 봉사활동을 펼치며 지역 호스피스계를 이끌 정도로 괄목할만한 업적을 쌓았다. 10기 호스피스 교육을 실시하는 동안 400명의 간병인(유료)과 50명의 호



정토마을 원장 능행스님은 "타종교의 공격적인 병원 선교로 죽음 앞에서 흔들리는 '평생 불심'을 지켜주는 것이 간병·호스피스"라면서 "이제 시작 단계인 불교 호스피스에 불자들의 참여와 성원이 절실하다"고 말했다.

한편 현재 호스피스 활동이 활발한 지역별 봉사단체는 충북지방장봉사회를 비롯 대전 아미타상조회, 경주병원불교회, 광주 자비선행회, 부산 바라길간병회와 불교복지보 건대회, 대구 불교사회복지회, 인천 피안사회복지회, 제주 화천사 호스피스봉사단 등, 이들 단체들은 온갖 어려움을 뚫고 타종교가 뿌리 내린 간병·호스피스봉사 영역을 파고들어 불자 및 환자들의 좋은 반응을 얻고 있다.

청원=김재경 기자 (jgkim@buddhapia.com)

종단소식

조계종
쌍용양회 시험발과 촉구
충무원(원장 정대)과 월정사(주지 현해)는 4일 강원도지사 앞으로 삼화사 인근 석회석 광산의 시험발과를 촉구하는 공문을 발송했다. 이 공문은 "7월 3일 삼화사와 쌍용양회(주), 조계종, 정부 당국의 합의에 따라 7월25일 시험발과 및 측정이 이뤄져야 함에도 불구하고 쌍용양회측의 무리한 협의조건의 수정요구로 인해 시험이 무산됐다"면서 당국의 공정한 발과 시험을 촉구했다. 삼화사도 3일 강원도와 동해시에 '쌍용양회 석회석 채취허가 취소 요청서', 강원도청청정장과 동해경찰서에 '화약류 사용허가 취소 요청서'를 각각 발송했다.

진각종
장애인 보호시설 개원
사회복지법인 진각복지재단은 3일 의정부시 장애인 주간보호 시설 '곰두리네 집' 개원봉사를 봉행했다. '곰두리네 집'은 연면적 168평 규모의 지상 1층 건물로, 만 18세 미만의 장애인 아동을 대상으로 월~금요일은 오전 8시30분부터 오후 6시 30분, 토요일은 오전 8시 30분부터 오후 2시까지 보호한다.

태고종
사정원 부원장 백우스님
7월 26일 선암사에서 열린 제78회 임시총회에서 이백우스님이 사정원 부원장으로 재선출됐다.

원흥종
충무원 이전법회
충무원을 서울시 구로구 구로동 413-80 한빛빌딩 4층으로 화장이전하고 18일 오전 11시 이전법회를 갖는다. 한편 이날 오후 2시부터 전국 주지총회를 개최, 종단 하반기 사업에 관해 논의한다. (02)853-0531

선암사 운영위 규정 제정
태고총림 선암사 운영위원회는 7월 27일 운영위원회를 개최하고 17조로 구성된 운영위원회 규정을 제정 공포했다. 운영위는 선암사 주지를 당연직 위원장으로 하고 신암사 재적승 20명과 종단 종진 간부 및 각 시도 교구 주무원장 등 총무원장이 선임한 20명 등 총 41명으로 구성되며 △총림의 회주 및 조실 추대 △선암사 주지 선출 △총림 및 사찰의 재산관리 △규약제정 및 개정 △사업계획과 예산 결산·감사 등을 맡는다.

전태종
상월 대조사기 배구대회
제27회 상월원각 대조사기 전국 청년회 배구대회가 20일 오전 8시 영춘중학교 운동장에서 개최된다. 배구, 씨름, 팔씨

아바타 코스는 자기 자신이 온전한 주인이 되어 뜻대로 사는 길입니다.
당신이 원한다면, 당신이 선택하기만 한다면 당신의 삶 전반이 바뀔 수 있습니다. 당신의 소원을 이루십시오.
밤은길 아바타 센터 마스터/위저드 김희균 서울 종로구 평창동 45번지
http://www.avatarcenter.co.kr ☎ (02) 396-2736 H-P 016)228-2358 E-mail : bukba@kornet.net FAX (02) 396-2735

성철스님 생가 복원

가사등 유품 전시...사찰도 들어서



94년 임직한 성철 스님의 생가가 경남 산청군 단성면 묵곡리에 사찰과 함께 복원됐다. 성철스님의 제자들과 산청군이 복원해 기념관으로 꾸미고 있는 생가와 관련 건물은 이미 완공돼 일반에 공개했으며, 주변경관을 단장하는 작업이 마무리되는 10월에 정식으로 문을 연다. 지리산 남강변 3천여평의 공간에 50여원을 들여 시작한 이 불사의 사업비 중 12억원은 정부예산(교부세)이며, 나머지 38억원은 신도들이 모금했다.

생가는 모두 3채의 한옥으로 안채와 사랑채, 그리고 유품전시실로 사용된다. 안채는 성철 스님의 영정을 모시고 일반인들이 참배하는 공간이며, 사랑채는 의무인이 머물 수 있는 숙소로 사용된다.

유품전시실에는 성철 스님이 마지막으로 머물렀던 해인사 백련암에 보관돼 있는 스님의 가사, 장삼, 지팡이, 육필원고 등 유품을 옮겨와 전시할 계획이다.

생가를 복원한 터에는 새로운 사찰이 함께 들어섰다. 대웅전과 참선할 수 있는 선방, 스님들이 머물 수 있는 요사채 등 건물은 이미 완공됐다. 사찰은 불필 스님이 이끌고 있는 문도회에서 관리할 예정이다. 김재경 기자

해탈사 2000기 탐공원 조성

망자의 시신을 화장한 후 탑에 안치하는 불교식 장례법을 현대화한 탐공원이 경남 마산에도 등장했다.

최근 마산시 합포구 진전면 여양리 태고종 해탈사(주지 도정) 경내에 조성된 탐공원은 기존의 매장문화가 일부계층의 호화분묘, 국토의 묘지화 및 무연고 분묘의 증가 등 여러 사회문제를 일으키는데 비해 절 경내에 화장한 유골을 모시는 탑을 세워 당대뿐만 아니라 가족들이 대대로 관리와 이용의 편의를 도모한 것이 특징. 3만여평의 공원 부지에 2000여기를 조성할 계획이다.

주지 도정스님은 "좁은 국토에 매년 여의도 크기의 땅이 묘지로 변해 장례비용 상승의 원인이 되고 있다"며 "왜곡된 장례문화 개선에 탐공원이 일조했으면 한다"고 말했다. (055)221-8410 김재경 기자

댐건설로 보림사 성보 위기

최초 구산선문...안개에 문화재 부식 우려

보림사철조비르자나불좌상(국보 제117호) 등 국보 2점과 보조선사 청상탑(보물 제157호) 등 보물 8점을 보유한 구산선문 최초의 사찰 보림사(주지 현광)가 탐진다목적댐 건설로 문화재 피해가 우려되고 있다.

현재 공정의 50%가 진행되고 있는 탐진댐이 완공될 경우 사찰인근 700m까지 물이 차올라 전방 정종군 유치면 봉덕리에 소재한 보림사의 귀중한 성보가 안개일수 증가와 일조량 감소 등으로 부식·훼손될 위기에 처해있다.

건설부와 수자원공사가 모두 6천억원을 투입해 지난 97년말 착공한 탐진댐 공사는 공사용 배수로 공사

법화종 도라전망대에 '평화의 종' 건립

광복 55주년을 맞아 세계 평화와 7천만 겨레의 평화적 통일을 염원하는 '평화의 종'이 북평명야 바다로 보이는 도라전망대에 봉안된다.

대한불교 법화종(총무원장 법홍)은 22일 오후 1시 전진부대 도라전망대에서 '평화의 종' 불사 회향 대법회'를 봉행한다. '평화의 종'은 약 1천원으로 국보 29호 성덕대왕신종의 모양을 본떠 제작했으며 이날 법화종 종정 금파스님 등 내외 귀빈들에 의해 33년 타종되어 통일염원을 담은 장중한 법음을 복벽 하늘로 퍼워보내게 된다.

법화종은 평화의 종 봉안식에 앞서 11시 30분부터 12시 30분까지 1시간동안 호국영령 및 순국선열 유무주공훈 위령 천도대제도 봉행, 나라와 민족을 위해 희생된 호국영령들의 극락왕생을 기원한다. 이경숙 기자

중 티베트 종교탄압 강화

예불금지·종교상징물 철거

중국인 티베트인들의 집에 경찰을 보내 제단과 성상, 탱화 등 종교 상징물들을 수거하고 초등학생들이 사원에 가지 못하도록 금지하는 등 종교적 억압을 한층 강화하고 있다고 '티베트 인권 및 민주화운동 센터'가 2일 밝혔다.

진아 꽃 피우는 방편의 꽃
우담바라
(하나한)

안은 열어나 밖이 두터워지는 비움 넘고
걸려들지 않으나 함께 못하는 바라봄 넘고
틈새 하늘 뿐 구름 못어는 이뤄고 넘어

부분에서 전체 찾아 뺀 짐작 벗고
자연과 하나되어 담백중앙 業習 벗고
자아 경계 자유로이 머물없이 마음내는 길

《 체험소감 》

"엄마 자궁 물나 아닌 내 자궁 열나로 부활영생 참 경지" - 신부
"먹고 싸고 보고 듣고 일함 모두를 도로 노자 소원 생취" - 교수
"아름-꽃을 나아갈- 나뭇길 참나의 근원적 예방 자유 길" - 의사
"구름사이 하늘 아닌 구름어는 법 애고 가득 채워 해결" - 스님

특징

- ※ 궁극 현실 조화 좋아 거남
- ※ 언어 마음이진 존재 발굴
- ※ 종교 안밖 모든 방편 옹호
- ※ 심각 아닌 진전 놀이 진행
- ※ 추가 과정 없이 한판 전수

경기도 여주군 북내면 천송리 517-1
031885-1011/016206-1001
매일 셋째 월 15:00~토 15:00(55만원)
농협 111-12-336006 윤석대
(일주일 전 예약 요망 준비 필요)

불교단체
사무직원 급구

종무행정직 사무장 및 전산사무직, 편집기자
(고등학교졸업이상 남녀40세 이하)

※ 경력자 우대

- 인 원 : 0명 (서류접수 = 이력서, 사진첨부)
- 근무지 : 서울지역
- 접수처 : 대구광역시 북대구 우체국 사서함 22호 **붓다사랑**
- 연락처 : 053)954-4047
- 접수마감 : 2000년 8월 25일
- 당일 소인 유요

분양 합니다

여기 예쁘고 튼튼한 집을 지었습니다. 불자가 지었습니다.

32평형 40평형 주차장도 넓고 편리합니다.

보통 걸음으로 불광역 3호선이 7분 독바위역 6호선이 1분

최고의 품질 우아한 인테리어 그 집 아트 빌, Art Ville

분자님들께 분양합니다.

◆분양문의◆
02) 387-9060
017) 215-9060

순수한 명연주사로 쓴
운장법사의 생필(眞本)
'五色판체'의 氣를 발하는 신비의 기적 '용린佛字체'

"오복을 가져오는 세천년시대 용의 글씨를 꾸세요."

승 곡 소장하여 할 가장 귀중한 진품 명품

◎ 선기·영기 발하는 佛자 달마(달마대사)그림, 龍자 그림(수맥과 차단) 특별보시!

정품으로 배우는 서예 사군자 달마 佛字, 龍字그림 전수자 수시모집!

한국 수맥파 방지 총연합회 인증 100% 효과

복사및음성등에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 인터넷 대한민국 미술작품 화랑망 (korea art gallery) http://www.korea-art-gallery.org http://www.cmhouse.net

사업실제, 가정봉화, 자녀문제, 부부갈등 등 상담하고 고민 하시는 분 서슴없이 전화하세요!

■ 생명의 전화 : (02)2242-0331, FAX (02)2242-0255 E-mail : unjang21@kornet21.net

●주문 신청방법 서울은행 28707-0452510 조정순 전 화로 주문하시면 곧 보내 드립니다.

韓國佛教藝術文化院
韓國佛教禪墨家協會